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에 관한 연구

배 영 애 *

- I. 서론
- II. 김정은 체제 이전의 '청년중시' 정책
- III.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의 등장 배경
- IV.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의 특성
- V.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청년들이 체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청년중시'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체제유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정은 체제의 특성 중에서 하나는 '청년'이 정치,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체제를 이끌고 나갈 세대이며,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여기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으로는 청년동맹의 위상과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과 관련된 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서 김정은의 '청년 지도자'로서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청년들을 결속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등의 수행을 위해 청년들의 노력동원의 확대와 청년교양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김정은

은 체제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청년들을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내세우고, 김정은 시대만의 '청년 전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김정은 체제는 '청년중시' 정책을 통해 청년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년세대를 결집시키고, 체제유지를 위해 이들의 역할을 최대한 도모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북한은 체제유지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청년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주제어: 김정은, 청년중시, 역할, 체제유지, 청년전형, 백두산영웅청년정신

* 서울대학교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북한에서 ‘청년’은 끊임없이 예찬되고 강조되어 왔던 범주인데,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청년중시’의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 1월에 “우리 청년들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울 것”¹이라며 청년층에 각별한 관심과 ‘청년중시’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북한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돌을 맞아 군사열병식을 매우 성대하게 진행하였다. 김정은은 열병식에서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역사적 로정은 당에 충실한 인민이 있고 강력한 혁명군대와 청년대군이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²라고 언급하며,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라는 노동당의 발전의 전략노선으로 ‘3대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청년중시’를 3대전략 중에 하나로 위치시킨 것은 ‘청년’에 대한 새로운 위상 부여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에서 “창당 첫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고 청년중시를 전략적 로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웠다”고 언급하며, ‘청년중시’라는 전략노선으로 설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청년이 ‘청년중시’라는 개념으로 ‘인민중시’와 ‘군대중시’와 같은 국가 전력노선에 올라서게 된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이어서 김정은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청년중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전략적 로선으로 틀어쥐고 청년들은 주체혈통을 이어가는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움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건설했다”고 언급하면서 ‘청년중시’의 격상된 용어로 ‘청년강국’³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청년들을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는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맨 앞장에 서있는 것도 청년들이고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모든 전투장들마다에서 비약과 혁신의 봉화를 제일 먼저 추켜들고 나가는 부대도 다름 아닌 청년집단이다”⁴라고 언급하면서 이들의 역

¹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은 영원히 빛나리.” 『노동신문』, 2012.1.17.

² “인민중시·군대중시·청년중시는 우리 당의 일관한 영도원칙.” 『조선중앙통신』, 2015.10.10.

³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서 청년강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신문』, 2016.10.11.

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김정은 체제가 청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까닭은 이들이 체제를 이끌고 나갈 세대이며,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후계자 시절에 ‘청년대장’으로 호명되었고, ‘청년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왔다. 청년이 주는 ‘변화에 민감하고 진취성과 활동적인’ 이미지로 부각시켜 ‘패기와 활력’을 갖춘 청년지도자로서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김정은 자신과 동시대의 연배인 ‘청년’을 통해 미래를 기약하겠다는 모습을 계속 부각시켜 왔다.⁵ 이처럼 김정은의 청년세대에 대한 강조는 ‘젊고 약동하는’ 이미지를 김정은 시대만의 특성으로 전유하는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년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한축으로서 원동력이자, 미래 세대이다. 청년들은 열기와 투지가 있고, 예민한 감수성과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가치관이 정립되느냐에 따라 체제유지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대이다. 특히 현재 김정은 체제의 청년세대는 이전의 청년들과는 다른 생애경험과 의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김일성 사망, 경제난, 장마당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경험하였다. 이는 북한의 청년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기존의 청년세대와는 확연히 차이나는 부분이다. 하지만 청년세대의 변화는 북한이 체제 유지에 있어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예민한 감수성과 변화에 민감한 청년들의 마음을 다잡는 것은 장기적인 권력 안정화에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에서 청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체제유지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재 김정은 체제는 청년들의 변화를 인식하고 주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년중시’ 정책을 통해 혁명의 계승자인 청년들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역할을 최대한 강조하며, 체제보위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문헌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청년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되는 ‘청년중시’ 정책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북한의 청년들을 체제유지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⁴ 로승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3대전략에 대한 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3권 제1호 (2017), p. 9.

⁵ 김성수, “북한문학, 청년 지도자의 욕망 - 김정은 시대, 북한 문학의 동향과 전망,”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1』 (북한연구학회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2014), pp. 271~290.

2. 선행연구의 검토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북한의 ‘청년중시’ 정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으며, ‘청년동맹’과 ‘청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북한에서 ‘청년동맹’은 ‘청년중시’ 정책의 출발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청년동맹에 연구는 근로단체의 정의와 조직의 성격을 개괄하거나 북한 체제에서 청년동맹의 역할이나 기능적 특성과 위상 등을 언급하고 있다.⁶ 북한의 청년동맹 연구는 가장 핵심적인 ‘청년중시’ 정책을 다룬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기존의 청년동맹 관련 연구들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의 청년중시 정책에 대한 논의 내에서 진행되어 최근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북한의 ‘청년’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특히 이 연구들은 경제난과 시장화, 화폐개혁 등 생애에서 독특한 경험을 겪었던 청년세대의 정체성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⁷ 김정은 시대의 통치기반인 ‘청년세대’가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특성과 이것이 북한 사회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의 북한 사회를 경험한 탈북 청년들의 진술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추측으로만 연구했던 북한 청년의 정체성 문제나 세대문제 등이 보다 구체적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비교 검토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체제이탈을 선택한 탈북 청년들의 진술만으로 현재 김정은 체제의 청년세대의 변화를 평가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청년’에 대한 연구로 문화예술 작품에 담긴 청년의 형상화나 청년들의 사회진출 양상을 분석하는데 북한의 영상매체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⁸ 영상매체는 그 사회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여관찰이 불가

⁶ 이종석 편,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1998); 정성장,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4);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 연구: 체제 수호의 전위대, 청년동맹』 (파주: 한울, 2008); 이은숙·이인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조선민주녀성동맹』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⁷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황규성, “북한청년의 사회적 공간과 주변대중화,” 『북한연구학회보』, 20권 1호 (2016), pp. 153~18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7).

⁸ 정영권,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와 청년세대: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4권 1호 (2008), pp. 33~66; 안지영·진희관, “김정일 시기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로 본 청년의 사회진출 양상과 함의,” 『한국문화기술』, 제19호 (2015), pp. 63~98.

능한 북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는 당이 요구하는 이상적 청년 형상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영상매체를 통한 현실상을 분석할 수 있지만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연구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김정은 체제의 청년세대는 기존의 청년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이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곧 북한의 체제유지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중시 정책을 검토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체제유지에 활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II. 김정은 체제 이전의 ‘청년중시’ 정책

1. 북한 청년의 특성

북한에서 청년기는 만 14세를 전후한 고급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30세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청년동맹에 가입 가능한 연령대를 청년세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년은 다정다감해서 새 것에 민감하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을 선호한다. 열정적이다. 지식욕과 탐구심이 높은 시기이다. 그에 따라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창조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기의식이 형성되고 자립성이 강화되는 시기이다. 특히 신체발육이 성인의 수준에 이르는 청년기에는 세계관이 형성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일반지식을 습득하고, 추상적 사유가 가능해진다.”⁹

북한에서는 청년들의 특성으로 새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을 빨리 받아들이고, 높은 각오를 금방 체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청년들은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가능한 자각능력과 실천의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위세계에 대한 옳은 견해와 판단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하여 과연 자연적으로 옳은 견해와 자각을 가지게 되는가에 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청년시절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

⁹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p. 46.

게 되는가? 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상교양을 받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¹⁰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청년기에 사상교양사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그들이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게 되며, 청년들이 그들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게 하려면 사상교양사업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청년들의 역할은 오직 수령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며, 수령에 대한 ‘전위대’ ‘돌격대’라고 규정하고 있다.¹¹ 이는 청년들이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든 앞장서서 헤쳐 나갈 수 있는 ‘선봉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새것을 지향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하고자 결심하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내는 투쟁과 패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훌륭한 기질로 하여 청년들은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투쟁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부대가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적극적이며 선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청년들이며 청년들은 군대의 기본 역량이며 청년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만이 군대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전쟁승리가 담보된다.¹²

또한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 전형’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상한 도덕 의리심,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 근면성과 순박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

2. 김정은 체제 이전의 ‘청년중시’ 정책

북한의 ‘청년중시’ 정책은 김일성의 청년시기 항일무장투쟁에 정통성을 부여하여 혁명전통화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의 청년들은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이 될 것을 강조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의 ‘청년중시’ 정책은 체제의 성립, 전쟁과 전후복구,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철저히 사상무장과 당성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청년을 조직과 동원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1월 17일 ‘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을 창립하

¹⁰ 김철성, “청년기 능력과 재능적 특성,” 『철학연구』, 제145호 (2016), p. 37.

¹¹ 김정일,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 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40.

¹² 채종완, 『청년사업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 28.

¹³ 이종석,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1998), pp. 23~24.

였고, 1964년 민청 제5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사로청)으로 개칭되었다. 민청은 당과 인민을 연결하는 인전대로서의 기능과 청년들을 노력 동원에 집중시키면서 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매진하였다. 김일성은 청년들에게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로 무장시키며, 당과 수령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조국을 보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또한 김일성은 1970년대 들어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김일성의 직접적 지도하에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후계자인 김정일이 총책임자가 되어 지도하면서 후계자 구축과 대중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확립에 상당히 기여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3년부터 소조원(과학 기술자, 청년지식, 당원)으로 구성된 ‘3대혁명 소조’가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북한의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기술교육을 전개하였으며, 이 중 약 90%는 청년인텔리(대학졸업생과 재학생)로 구성되었다.¹⁴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청년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면서 청년 모범 소조원에게 파격적인 입당과 훈장을 내세웠다. 청년 소조원들의 역할은 모든 분야의 대중들에게 혁명적 열의와 창조성을 고취시켰고,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을 보급하였다.

김정일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한 체제위기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김정일 체제의 대외관계의 약화와 경제의 위기로 인해 청년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조직화된 의존관계’는 약화되었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에서는 ‘위기대응 전략’으로서 ‘청년중시’ 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정일 체제에 들어서서 선군정치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군인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청년중시’ 정책을 펼쳤다. 먼저 김정일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으로 1996년 1월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명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김정일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은 ‘청년동맹’에만 의존해오던 경향에서 벗어나 다른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정일은 ‘청년중시’ 정책을 가시화하고자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당시 결성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기념하기 위하여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였다.¹⁵ 이는 항일혁명의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에게 항일투쟁 당시 청년들을 기리도록 함으로써 ‘대를 이어’ 혁명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당위와 명분을 제공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또 김정일 체제는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혁명적 군

¹⁴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505.

¹⁵ 『노동신문』, 1991.2.1.

인정신'을 청년들에게 정치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은 청년동맹에 의존하던 경향에서 벗어나서 청년절을 제정하여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가능한 기념일을 제정하는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은 김정은 체제에서도 계승하고 있지만, '청년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청년을 더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면,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은 그런 위기상황에서 등장한 것은 아니다.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은 '당과 혁명의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면서 하나의 지침이 되었고 청년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청년강국'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젊은 지도자'라는 이미지와 함께 청년세대를 시대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혁명의 계승자로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체제유지와 국가발전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다.

Ⅲ.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의 등장 배경

1. 세대교체를 통한 유일체제의 기반 마련

김정은은 연료이나 업적 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체제유지를 위해 유일체제 기반의 확립과 안정성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김정은은 '청년중시' 정책을 펼치며, 젊은 세대로의 세대교체를 통한 권력 엘리트 재구성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는 당·정·군 기관에 40~60대 간부들을 배치하면서 권력엘리트 세대교체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일 시대 권력 엘리트이면서 김정은 세습 초반 후원세력이었던 '운구차 7인방'은 모두 제거되었다.¹⁶ 이 밖에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용진·최영건 내각 부총리,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 최고위급 간부들이 최대 130여 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⁷ 북한 당국은 36년 만에 열리는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조직 정

¹⁶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춘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은 순차적으로 제거되었으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김기남 선전선동부장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제7기 당 중앙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통해 퇴장했다.

¹⁷ 김갑식 외,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117.

비 및 세대교체를 추진하였다. 7차 당대회와 관련한 참가자 선발과정에서 '연로보장' 대상인 60세 이상의 당원은 추천 등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⁸ 이는 청년세대의 정치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제7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각급 당대표회 대표자 3,667명은 6차 당대회(3,220명)보다 447명 더 증대되었고, 그 대표자 중 청년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¹⁹ 특히 제7차 당대회 직후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원로그룹이 생존하여 노·장·청 배합정책을 유지한 반면에,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들의 엘리트는 세대교체를 이뤘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 235명중 106명(45.1%)은 재선되었으나 129명(54.9%)이 신규 선출되었다. 모든 신입위원·후보위원들의 출생년도, 출신지역, 학교, 혈통 등 세부 사항이 상당히 젊어지고 있다.²⁰ 이는 노동당의 최상위 지도부는 세대교체의 폭이 크지 않으나, 당중앙위원회의 위원·후보위원 등 실무자급의 과반수가 변화된 것은 세대교체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상층부의 안정화, 중상층부의 세대교체 등의 기조로 추진되어 김정은 유일체제의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¹

또 젊어진 중앙당 파워 엘리트들이다. 정치국 상무위원에 최룡해가 임명되고, 후보위원에 임철웅(1961년생)이 선임되는 등 이전보다 상당히 젊어진 인물들이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당 전문부서에 농업부부장 리철만(1968년생) 등 젊은 세대들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는 조직 지도부의 조용원 또한 50대로 젊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여정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되었으며, 2017년 10월 2차 전원회의에서는 만 30세의 나이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시·군 당 책임비서들과 조직비서들을 40대로 바꾸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 간부들의 본격적인 등장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 당국은 “5년 내에 실무 간부들을 젊은 사람으로 바꾸라”는 지침을 하달했고, 이에 따라 내각의 중견 간부들이 40대 젊은 세대로 가장 빠르게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²

¹⁸ “북, 당대회 참가자 연령 제한. 세대교체 ‘신호탄,’” 『자유아시아방송』, 2016.3.2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n-03292016155533.html?searchterm=utf8:ustrin%EB%8B%B9%EB%8C%80%ED%9A%8C+60%EC%84%B8> (검색일: 2018.8.25.).

¹⁹ 박영자,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77.

²⁰ 위의 책, p. 238.

²¹ 이상숙, “북한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엘리트 변동,”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17 (2016), pp. 17~18.

²² “북, 당대회 참가자 연령 제한. 세대교체 ‘신호탄,’” 『자유아시아방송』, 2016.3.2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n-03292016155533.html?searchterm=utf8:ustrin%EB%8B%B9%EB%8C%80%ED%9A%8C+60%EC%84%B8> (검색일: 2018.8.25.).

실제 젊은 간부들의 연령은 김정은 집권 초기보다 더 낮아져서 40대로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²³ 또 김정은 체제의 군부도 건강문제, 리더십 부족, 숙청, 부정부패 등 다양한 이유로 군 핵심권력층(군단장급 이상) 총 219명 중에서 88명이 퇴진하고, 97명이 새로 등장했으며, 총참모부와 정찰총국에도 40대들이 소장과 중장에 임명되는 등 군 내부에서도 젊은 층이 두터워지고 있다.²⁴ 이처럼 김정은 체제는 집권 초기부터 ‘청년중시’를 정책을 통해 30대 젊은 지도자에게 맞는 젊고 새로운 인물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며 세대교체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젊은 청년층의 세대교체를 통해 체제기반을 구축하고 장악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2.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원동력 필요

북한이 1998년에 규정했던 2012년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완성’의 해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와 경제난 등으로 결국 2012년에 강성대국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렇다 보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대신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 출범을 위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의 출범인 2012년 신년사에서 처음 ‘사회주의 문명국’이 등장한 후,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중요분야가 되었다. 또 2012년 4월 6일 공식취임을 앞둔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4·6 담화’)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을 주요과제로 처음 제시했다.

“교육, 보건, 문화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부분에서도 끊임없는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이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게 하며 온 사회에 희열과 량만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²⁵

www.rfa.org/korean/in_focus/ne-jn-03292016155533.html?searchterm:utf8:ustring=%EB%8B%B9%EB%8C%80%ED%9A%8C+60%EC%84%B8 (검색일: 2018.8.26).

²³ 김갑식 외,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pp. 98~99.

²⁴ 정성장, “김정은 시대 북한군 핵심 요직의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 『세종 정책브리핑』, 2015-4 (2015), pp. 19~20.

²⁵ “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조선중앙방송』, 2012.4.6.

‘사회주의 문명국’은 김정은 체제의 매해 신년사에서 연이어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 것을 언급하였다. 2013년 2월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도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이 핵심노선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 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²⁶

김정은은 ‘사회주의 강성국가’에 대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문화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 문명국’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과업으로 평양시를 더 웅장하고 수려한 도시로 만들고,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 등을 더 많이 건설할 것을 제시했다. 최근에 ‘사회주의 문명국’은 물질문명, 도덕적 품성, 문화지식, 건강한 체력 등으로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체계화되고 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는 상위 목표 속에 건설·체육·관광의 3대 부문을 각별히 강조해 오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문명국’은 시각적으로 도시적 경관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주요 공식매체에서도 대부분 새로운 건설물이나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이 용어를 쓰고 있다.²⁷ 사회주의 문명국은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새 선경들이 펼쳐지고” “사회주의 문명국의 휘황한 령마루”로 가는 과정으로 표현한다. 2016년 신년사에서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라고 언급하면서, 김정은 시대를 ‘건설의 대번영기, 새로운 문명개화기’로 규정했다.²⁸ 결국 사회주의 문명국은 곧 ‘건설’을 의미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해 각종 체육시설, 휴양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도시미화법과 공원·유원지법 등 관련 법규들도 개정하고 있다. 평양 이외의 지방 주민들의 유희시설, 체육시설의 건설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²⁹

²⁶ “새해 신년사,” 『노동신문』, 2013.1.1.

²⁷ 홍민,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62.

²⁸ “행복의 높이, 문명의 높이,” 『노동신문』, 2016.1.24.

²⁹ 편집부, “사회주의 문명국: 경제생활과 문화생활 향상,” 『민족21』, 2014년 3월호 (2014), pp. 172~173.

이렇게 김정은 체제에서 여러 차례 강조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목표는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전략적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렇다 보니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국가비전인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해서 북한은 청년들에게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원동력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주의 문명의 창조자, 문명강국 건설의 앞장서서 받들어 나가야 한다”³⁰ 라며 계속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건설이라는 국가적 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청년중시’ 정책을 통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진 청년들을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내세우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북한 청년세대의 정체성 변화

북한의 기성세대는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인 배급제의 혜택을 받으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북한의 청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경험과 의식체계를 지닌 세대이다. 현재의 북한의 청년세대는 ‘장마당 세대’로 호명되며, 1980~1990년대에 태어난 20·30대에 속한다. 이들은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국가의 혜택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채 ‘고난의 행군,’ 장마당과 시장화, 3대세습체제와 같은 사회적 생애경험을 했던 집단이다. 기성세대가 장마당에서 활동하고, 고난의 행군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면, 청년의 경우에는 장마당을 통해 사회화가 이뤄졌다. 현재의 청년 세대들은 경제난과 체제이완으로 사상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대부분의 성장기를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직·간접적으로 시장을 경험하였다.³¹

이들은 장마당의 영향으로 외부세계의 문화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이념보다는 경제활동에 관심이 많고 배급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외국과 남한 문화를 접하고 동경하기도 하며, 컴퓨터와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에도 익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북한의 청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겪게 함은 물론 그들의 가치관도 변화시켰다. 북한 청년들은 동경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경험이나

³⁰ “청년절 맞아 성대히 축하하며,” 『노동신문』, 2015.8.28.

³¹ 노귀남, “시장화 속의 북한 새 세대의 지향과 전망,”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p. 142.

기억이 전무한 세대로 이들은 당과 국가에 대한 의존관계가 약화되었다.³² 이들에게 국가는 운명공동체로서 믿음이나 의지의 대상이기보다는 끊임없는 '검열'이나 '통제'를 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 북한의 청년들은 국가로부터 권리나 혜택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체제가 요구하는 '의무'만을 수행해야만 했다.³³

현재의 북한 청년들은 시장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모호하고 복잡적이다. 예컨대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청년들이 국가를 뛰어넘어 시장의 주요세력이 되기에는 경제적 위치가 제한적이며, 자본 또한 부족하다. 무엇보다 사회문화적 구조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다. 이들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고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시장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와 시장,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기성세대의 가치와 청년세대의 가치 사이를 넘나들면서 양면적으로 존재하고 끼어있는 '사이(in-between)세대'라고 할 수 있다.³⁴ 그렇다 보니 북한 청년의 정체성은 다면적이면서 국가나 시장으로 분류하여 설명될 수 없는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세력이 될 지, 아니면 체제 유지에 주도적인 세대로 남을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 청년의 변화 가능성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 김정은 체제도 북한 청년들의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체제에서 더 강화되고 있는 '청년중시' 정책은 이런 청년세대의 정체성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변화에 민감한 청년들의 마음을 다잡는 것은 권력안정화에 필수요건이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청년강국'을 내세우면서 체제수호를 위한 미래세대인 청년세대를 결속시키는 차원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청년'을 내세우고 있다.

³² 이무철, “북한 교육정책의 정치학,” 『현대북한연구』, 제18권 1호 (2015), p. 157.

³³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pp. 164~168.

³⁴ 위의 책, pp. 178~180.

IV.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의 특성

1. ‘청년동맹’의 위상 강화와 다양한 청년대회의 개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청년중시’ 정책의 특성으로 청년동맹의 위상강화와 청년운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북한의 청년동맹은 만 14~30세 청년들이 의무 가입하는 약 500만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대 규모의 조직인 근로단체이다. 김정은 체제는 제9차 청년동맹 대회를 2016년 8월 27~28일 이틀 간 평양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1993년 2월 이후 23년 만에 개최된 제9차 대회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변경하였다. 청년동맹의 개칭에 대해 “김일성·김정일의 태양의 존함을 함께 모시며,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것은 온 나라 전체 청년들과 청년동맹일군들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절절한 염원”³⁵이라고 언급했다. 청년동맹은 1946년 1월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돼 1951년 ‘남조선민주청년동맹’과 통합하면서 ‘조선민주청년동맹’이 됐다. 1964년 5월 제5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1996년 1월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됐다. 북한이 청년동맹을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변경한 것은 2016년 5월 열린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언급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제9차 청년동맹 대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하여 직접 연설을 하는데, “청년동맹조직과 청년들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해 청년동맹의 조직 강화와 청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차 당대회의 당규약 개정에서 김정은 체제에서의 청년동맹의 역할을 “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⁶ 이전부터 청년동맹이 당의 후비대, 선봉대, 인전대 역할이라고 규정했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체제의 차별성을 강조와 청년동맹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청년동맹은 연령적으로 젊은 청년들인 500만 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의 후비대로서의 중요한

³⁵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성대히 진행,” 『조선신보』, 2016.8.29.

³⁶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노동신문』, 2016.5.10.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예비당원을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원과 간부를 배출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동맹은 다른 근로단체들에 비해 맹원들에게 높은 강도의 조직성과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청년동맹의 출신 인사들이 당의 핵심 지도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동맹이 김정은 체제에서 권력 엘리트의 출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청년동맹 간부들에 비해 상당히 젊은 편이다. 청년동맹 출신 간부들이 당의 주요 직책을 맡는 현상은 김정일 체제에도 있었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의 핵심 지도부로 부상했다는 것은 청년동맹의 위상 강화와도 연관을 맺는다.³⁷ 아래의 <표 1>은 김정은 체제의 청년동맹 출신의 당의 핵심 엘리트들로 진출한 인물들이다. 청년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96~98년 청년동맹 1비서를 역임했던 최룡해가 당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핵심 권력엘리트로 평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휘(당정치국 후보위원), 지재룡(주중 북한대사), 박철민(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리일환(당 중앙위원회 부장), 문경덕(평북 당위원회 위원장) 등 청년동맹을 지도했던 인물들이 당의 핵심 지도부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을 이끌어어나가고 김정은 체제의 주축이 될 집단은 30~40대층이 될 것으로, 상대적으로 젊고 청년대상의 대중사업 지도경험을 가진 청년동맹 조직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김정은 체제의 청년동맹 출신의 당 핵심 간부들(2018년 기준)

이름	현재의 직책	청년동맹과의 연관성
최룡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 조직지도부 부장	사로청위원장(1986-1996) 청년동맹 1비서(1996-1998)
최 휘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사로청부위원장(1994) 청년동맹 1비서(1996)
지재룡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주중 북한대사	사로청위원장(1976-1981)
박철민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청년동맹 1비서(2017-현재)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부장 당 근로단체부 부장	청년동맹 1비서(1998-2001)
문경덕	평북 당위원회 위원장	사로청부위원장(1991)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홈페이지 <<http://nkinfo.unikorea.go.kr/nkp/theme/peopleList.do>> (검색일: 2018.9.1.).

³⁷ 김종수,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 『통일연구논총』, 제22권 제2호 (2013), p. 60.

또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청년중시’ 정책으로 청년과 관련된 대회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0년 만에 개최된 청년동맹대표자회, 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 청년미풍선구자대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등 오랫동안 개최되지 않았던 청년과 관련된 대회(회의)를 연달아 열었다. 다음의 <표 2>는 김정은 체제에 개최된 청년과 관련된 대회의 현황을 작성한 것이다.

<표 2> 김정은 집권 후 청년과 관련된 대회(회의)의 개최 현황

연도	횟수	행사현황
201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동맹 대표자회(7월) • 조선인민군중대 청년동맹초급단체위원장 대회(10월)
201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월) • 전국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2월)
201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2, 4, 10월) • 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꾼대회 개최(9월)
201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5월) •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 3, 10, 11월) •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11월)
201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 5, 9월) • 청년동맹 제9차 대회(8월)
201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 6, 11월) • 청년동맹 90돌 기념 중앙보고회(8월) • 조선인민군 제4차 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 열성자 대회(9월)

출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참고하여 작성함.

북한은 2015년 5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는 1997년 12월 ‘전국공산주의미풍선구자대회’라는 이름으로 평양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번 제2차 대회는 전국에서 선발된 3000명의 청년이 참가한 가운데 18년 만에 열린 것이다. 김정은이 직접 대회에 참석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는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미풍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며 청년들을 혁명적 인생관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핵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적극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은은 대회에서 “새 출발한 청년들은 모두 안아주고 싶으며, 이 땅위에 청년중시의 위

대한 경륜이 마련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 탄생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강하면 우리 당과 인민군대가 강하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사회주의 조국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 문제인 청년사업에 품을 아끼지 말라”³⁸며 청년사업의 중요성과 청년중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 또 북한에서 2015년 11월 21일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사상·기술·문화 등의 3대혁명을 관철하기 위해 전 사회적으로 전개되는 대중운동이며, 1986년 11월, 1995년 11월, 2006년 2월에 개최되었다. 김정은은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에서 “청년들 속에서 이색적인 생활 풍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사회주의적이며 민족적인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³⁹

이처럼 김정은 체제는 ‘청년’과 관련된 대회들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청년 지도자’로서 존재감을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이 청년과 관련된 행사를 참석하거나 챙기는 행보를 자주 보이는 것은 청년세대가 자신과 함께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대이며, 체제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청년절이 되면 ‘청년중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청년절은 1991년 2월 1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제정한 기념일이다. 북한은 이 정령을 통해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청년운동 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한 1927년 8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날을 청년절로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⁰ 1991년 8월 28일부터 매년 청년절이 되면 경축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독려하고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⁴¹ 김정은 체제의 첫 해인 2012년 청년절 경축행사가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전국 각지의 청년 대표만 여 명을 평양에 불러들여,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김정은은 “청년절 경축행사는 당의 청년중시 사상에 의해 승승장구해 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내며 청년들의 애국충정과 역센 기상을 과시하는 대정치축전”이라고 언급했다.

³⁸ “청년들은 혁명적이고 고상한 사회주의 미풍의 선구자가 되자,” 『조선중앙통신』, 2015.5.13.

³⁹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평양에서 개막,” 『조선중앙통신』, 2015.11.21.

⁴⁰ 『노동신문』, 1991.2.1.

⁴¹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 연구: 체제 수호의 전위대, 청년동맹』 (파주: 한울, 2008), p. 369.

〈표 3〉 김정은 체제 이후의 ‘청년절’ 관련 기념행사 내용

연도	관련 행사 내용
2012	청년절 경축 청년전위들의 햇불 이어달리기 개최(8월 13~24일), 청년절 경축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최(8월 17일), 청년절 경축 사진전람회 개최(8월 22일), 청년절 경축대회(8월 27일),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 맹세모임(8월 27일), 청년집쟁탈농구대회(8월 28일), 인민군청년대표들을 위한 은하수음악회 공연(8월 27일), 청년절 경축행사(8월 25~30일), 청년절 경축 청년전위들의 햇불행진(8월 29일), 청년절 경축 야회 개최(8월 29일), 청년절 경축행사 대표들 은하수 음악회 관람(8월 30일)
2013	청년절 경축 학생청년들 체육경기대회(8월 12~28일), 청년전위들의 ‘어은혁명사적지’ 답사행군(8월 16일), 청년절 경축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최(8월 23일), 청년절 경축대회(8월 24일), 청년절 경축행사(8월 28일),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8월 28일)
2014	청년절 경축 햇불컵 축구대회(8월 10~28일), 학생청년들 대동강 도하경기 개최(8월 22일),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 전시회(8월 27일),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 및 결의대행진(8월 27일),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8월 28일), 청년절 경축행사(8월 28일)
2015	청년절 경축 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성과 전시회(8월 24일),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 개최(8월 28일), 청년절 기념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8월 28일), 청년절 기념행사(8월 28일), 청년절 경축 야회 개최(8월 28일)
2016	청년학생들의 무도회(8월 25일),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 개최(8월 28일), 청년절 경축행사(8월 28일),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8월 28일)
2017	청년절 90주년 기념 청년중앙 예술선전대 공연(8월 24일), 청년절 9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8월 27일),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8월 28일), 청년절 경축행사(8월 28일), 청년절 경축 청년학생 무도회 공연(8월 28일), 청년절 경축 햇불컵 축구대회(8월 28일),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 개최(8월 29일)
2018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 개최(8월 22일), 청년절 기념 청년중앙 예술선전대 공연(8월 27일), 청년절 경축행사(8월 28일), 청년절 기념 청년학생 무도회 공연(8월 28일), 청년절 경축 야회(8월 28일)

출처: 2012~2018년 『조선중앙통신』을 참조하여 작성함.

위의 〈표 3〉과 같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청년절 행사를 더 성대하게 치르는 데는 청년들의 역할수행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치켜세움’으로써,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또 북한 당국이 청년층의 동요를 막고 체제에 대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청년절’은 국가 차원에서 청년들의 헌신을 격려하는 행사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 영역에서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전위대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2. 청년들의 경제적 동원 확대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은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부대, 전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가는 정치”라고 정의하면서, 청년들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 가장 중요한 전선을 맡아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하여 인민경제계획에서 큰 몫을 수행해야 한다”⁴²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에서 청년들의 노동력은 경제적 효율성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청년들이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 당의 요구를 충실하게 받아들여 많은 건설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⁴³ 특히 김정은 체제는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남 먼저 달려 나가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우리 사회에서 높이 발양되고 있는 아름다운 미풍의 선구자”⁴⁴라 언급하면서 청년들의 애국심에서 우러나는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청년들로 이루어진 ‘청년돌격대’를 조직하여 경제부문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며, 주로 어렵고 힘든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김정은 체제의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등의 각종 경제사업과 ‘우상화’를 위한 사적지 건설 등 사실상 청년들이 모두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창립 40주년을 맞은 속도전청년돌격대는 김정은 체제에서 평양 창전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에 세워진 고층살림집, 북부철도보수공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건설, 공장, 고속도로, 발전소 등을 비롯해 약 100여개에 달하는 국가 건설사업을 주도했으며, 청년들의 경제적 동원을 더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청년돌격대가 ‘200일전투’가 진행되는 기간에 수십 개의 건설을 완공하고, 500여 대의 기계설비에 ‘청년호’로 명명하였다고 언급하면서 그 업적을 치하했다.⁴⁵ 아래의 <표 4>는 김정은 체제 이후 진행된 주요 건설사업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⁴² 김양환,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는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로 내세우는 정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률)』, 제62권 제4호 (2016), pp. 70~72.

⁴³ 강성진,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청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가 되기 위한 중대한 요구,” 『정치법률연구』, 제4호 (2017), p. 38.

⁴⁴ 길소향, “우리의 청년강국은 김일성, 김정일 청년강국,” 『정치법률연구』, 제4호 (2017), p. 33.

⁴⁵ “조선노동당의 위업을 충정 다해 받들어 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일심단결의 대회,” 『조선중앙통신』, 2016.9.1.

〈표 4〉 김정은 체제 이후 주요 건설사업 현황

건설년도	건설사업
2012	2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과학연구온실, 희천발전소, 태권도성지중심, 평안남도 도서관 / 5월: 단천항 / 6월: 창천거리 / 7월: 룡라인민유원지, 황남청년제염소 / 8월: 김형직 사범대학(개건) / 9월: 평양민속공원, 고려성군관 교사, 원산시 해안 유희장 / 10월: 만수교청량음료점, 양강도체육촌, 통일거리운동센터, 만경대유희장, 대성산유희장 / 11월: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롤리스케트장
2013	3월: 대성산종합병원 / 4월: 만포연하발전소 / 5월: 룡라인민체육공원, 평양국제 축구학교 / 6월: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 / 7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도서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 9월: 은하과학자거리 / 10월: 문수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체육관(개건), 미림승마구락부,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 12월: 마식령스키장
2014	3월: 청춘거리체육촌(개건) / 4월: 김일성종합대학 김정일군사연구원 / 5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 6월: 순천부두 / 7월: 황해북도산원, 라진항3호부두 / 9월: 송도원역 철길 / 10월: 평양음악원·애육원, 5월1일경기장(개건), 룡원리역(개건), 배산점역, 성산역,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 11월: 례성강청년4호발전소 / 12월: 어랑천2호발전소
2015	7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살림집, 평양순안국제공항, 신천박물관(개건) / 8월: 평양양로원 / 9월: 룡산청년발전소 / 10월: 미래과학자거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1호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2호 , 삼천금강묘양소(개건), 서산호텔 / 11월: 청천강계단식발전소 / 12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자성강1호발전소, 미래원(개건)
2016	1월: 함경북도음악원·애육원, 과학기술전당, 청년운동사적관 / 2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 3월: 자강도음악원·애육원 / 4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 강계, 평성, 사리원, 남포음악원·애육원, 원산초등학교·중등학교, 초산청년3호발전소 , 민들레학습공장 / 5월: 원산군민발전소, 함흥, 혜산, 신의주, 해주음악원·애육원, 함흥과학자살림집(1단계),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 / 6월: 평양체육기자재공장, 만경대소년단야영소(개건) / 7월: 평양중등학교 / 7월: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 / 8월: 평안남도 청소년 체육학교, 군민발전소 / 10월: 함경북도 살림집 완공 / 12월: 원산 12월6일소년단야영소
2017	1월: 금산전갈가공공장·수산산업소 / 2월: 평양초등학교 / 3월: 백두산 건축연구원(개건), 조선혁명박물관 / 4월: 여명거리 살림집 완공, 황주초등학교, 강서중등학교 / 6월: 평양치과위생용품 공장 / 8월: 태권도 전당 / 10월: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 / 11월: 순천메기공장 / 12월: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

출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위의 〈표 4〉에서 건축물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삽입된 경우는 8건이나 되며, 이는 청년들의 업적을 치켜세워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김정은 체제의 대표적인 치적물인 마식령 스키장과 숙원사업이었던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1~3호가 완공된 것도 모두 청년들의 노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정은은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청년동맹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서 의의 있는 중요 대상건설을 맡아 훌륭히 해제김으로써 청년돌격대의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해야 한다. 나 자신은 군대와 청년돌격대를 앞세워 건설의 대변영기를 펼쳐나가겠다고 하였다”⁴⁶고 언급하였다. 또 2018년 8월 청년절을 맞아 북한 당국은 “수많은 청년이 증산투쟁과 돌격투쟁을 맹렬히 벌여 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등 선봉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⁴⁷면서 그 업적을 치하하였다. 이렇게 김정은 체제에 들어 ‘청년중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청년세대가 대규모 국가의 건설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은 청년세대가 할당받은 노동량을 달성하는 과정이야말로 청년들이 당에 헌신과 충성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주역으로 청년들을 내세우고 있으며, 노동력의 자발적인 동참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3. 청년교양의 지속적 강화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은 청년세대가 체제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상무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는 “청년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 혁명의 종국적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정치”⁴⁸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는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이며, 청년들이 혁명과 건설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끊임없이 단련시키며 혁명적으로 교양해야 한다”⁴⁹고 언급하면서 ‘청년강국’의 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하여 청년들의 사상교양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이 청년들의 혁명성 약화와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유입으로 인한 생활풍조의 오염에 대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제국주의자들은 썩어빠진 부르주아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퍼뜨려 청년들을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어 저들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려 하

⁴⁶ 김정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한 연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 12~13.

⁴⁷ “청년들이 경제건설 대진군의 선봉에서 영웅적 위훈을 창조해가자,” 『노동신문』, 2018.8.28.

⁴⁸ 김양환,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률)』, 제63권 제1호 (2017), p. 65.

⁴⁹ 류성일, “청년중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제62권 제4호 (2016), p. 20.

고 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 침투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늦춘다면 청년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⁵⁰라고 지적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우리식 사회주의의 화원에 돌아오는 온갖 비사회주의적이며 이색적인 독초의 싹들을 뽑아시기에 뿌리째 들어내야 한다”⁵¹고 언급하면서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3배로 강화하라’는 지침과 함께 가장 강조하고 있는 ‘5대교양(위대성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이다. 그 중에서 핵심은 지도자의 교양이며,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업적과 위대성을 주입시키는 청년교양사업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⁵² 또한 북한 당국은 청년들에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문헌, 김정은 노작 등을 강연, 담화, 해설모임, 문답식학습방법, 연구발표모임과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년전위』를 비롯하여 청년들을 독려하는 교양자료의 활용을 통한 교양사업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³ 김정일 체제에 들어와서는 “청년들을 심리에 맞게 그들을 잘 교양하고 이끌어주면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이바지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와 반대로 다듬어주고 이끌어주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사회와 집단에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청년들을 교양하는데 기질과 특성에 맞는 교양 방법은 무엇이기에 대하여 사색하고 탐구해야 한다”⁵⁴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장마당 세대인 청년들의 정체성 변화와 외부정보의 유입에 따른 사상교양 사업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청년들에 대한 형식적인 사상교양 방법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⁵⁰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역세계,” 『노동신문』, 2016.8.17.

⁵¹ “청년동맹 제9차 대회 김정은 당 위원장 연설,” 『조선중앙통신』, 2016.8.29.

⁵² “北, 나선시 청년에 “김일성·김정일 말씀 암기” 사상학습 강요,” 『데일리NK』, 2017.5.18, <<https://www.dailynk.com/北-나선시-청년에-김일성김정일-말씀-암기/>> (검색일: 2018. 11. 22).

⁵³ 계은심, “청년들을 사회주의의 견결한 옹호자, 힘있는 건설자, 믿음직한 보위자로 교양육성하는 것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 『철학연구』, 제2호 (2018), pp. 26~27.

⁵⁴ 김현구, “청년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사회과학원학보』, 제2호 (2017), p. 25.

4.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제시와 새로운 ‘청년전형’ 강조

최근 북한에서는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제시하고 있다.⁵⁵ 이는 김정은 체제만의 ‘청년전형’을 만들기 위해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처음 제시한 것은 2016년 4월 23일 김정은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완공 현장의 현지지도를 하면서 나왔다. 김정은은 “청년들이 어떤 정신을 안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했는가를 보여주는 교양거점”이라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혁명적 군인정신과 강제정신이 창조되었다면, 오늘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었다”⁵⁶라고 언급하였다. 또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당의 요구에 따라 영하 30도의 혹한이란 불리한 자연환경과 열악한 수송조건의 역경 속에서도 청년들이 돌격정신을 발휘하여 공사를 완공했으며, 당의 ‘청년중시’ 정치가 낳은 혁명정신이며, “수천수만의 젊은 인재들과 청년 대군을 당을 따라 곧바로 나가는 청춘궤도에 세워주고 혁명의 전위대로 내세우면 못해 낼 일이 없으며, 최후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들에 대한 믿음”⁵⁷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시대정신으로 꼽은 근거에 대해서는 ‘새 시대의 지향과 요구, 열정이 맥박 치는 혁명정신’, ‘자력자강으로 세계를 향하여 내달리는 오늘의 만리마시대의 기상이 나래치는 혁명정신’, ‘혁명의 운명과 장래를 짚어준 전위대, 주력부대의 사상정신이 구현된 혁명정신’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후 북한에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 모든 청년들을 백두산영웅청년 돌격대원들과 같은 훌륭한 청년들로 키우는 것은 당과 수령의 청년중시 사상과 영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혁명을 보위하고 역세계 전진시키는 중대한 사업”⁵⁸이라고 언급하면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김정은 시대에 청년들이면 꼭 가져야할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렇게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심각한 경제난과 자연재해까지 겹쳐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⁵⁵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노동신문』, 2016.8.26.

⁵⁶ 위의 신문.

⁵⁷ 홍옥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하기 투쟁,”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역사·법률)』, 제64권 제3호 (2018), pp. 49~50.

⁵⁸ 박미향,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의 창조와 발양의 원천,” 『철학연구』, 제149호 (2017), p. 7.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시기’를 ‘혁명적 군인정신’과 ‘강계정신’으로 극복했다면, 핵·미사일 도발로 가해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겪고 있는 현재의 대내외 상황을 시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엄혹한’ 시련을 이겨낸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강한 정신력을 김정은 체제의 ‘청년 전형’으로 꼭 가져야 할 정신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청년들을 사회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내세워 청년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파악될 수 있다.

V. 결론

김정은 체제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청년’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 등 모든 전반에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위상과 역할을 이전 시기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민감한 청년들은 궁극적으로 체제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의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청년중시’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세대교체를 통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의 기반 마련,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원동력으로 청년을 내세우고 있다. 또 현재의 북한 청년세대는 무조건 당과 수령에 충성을 했던 과거 청년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청년강국’을 내세우면서 체제수호를 위한 미래세대인 청년세대를 결속시키는 차원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청년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청년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청년리더로 부각된 점을 앞세워 청년들에게 충성과 체제에 뭉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청년중시’ 정책으로는 23년 만에 제9차 청년동맹 대회를 개최하여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세대를 결집시켜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청년동맹의 출신 인사들이 당의 핵심 지도부에 진입하고 있으며,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의 핵심 지도부로 부상했다는 것은 청년동맹의 위상 강화와도 관련이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는 매해 청년절이 되면 ‘청년중시’, ‘청년 사랑의 정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다양한 행사가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동맹대표

사회, 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 청년미풍선구자대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등 오랜 기간 열리지 않았던 청년과 관련한 대회와 행사들을 연달아 개최하였다. 또 김정은이 청년과 관련된 행사를 참석하거나 챙기는 행보를 자주 보이는 것은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청년들이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 당의 요구를 충실하게 받아들여 많은 건설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은 가장 열기왕성하고 노동력의 효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청년들은 여러 발전소, 백두산철길, 여명거리건설 공사장 등 청년 동맹원들을 대거 동원해서 각종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사업에 투자하여 경제적 치적을 주민들에게 과시하는 경제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청년들에게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동참여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청년세대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은 청년세대가 체제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상무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3배로 강화하라'는 지침과 함께 '5대 교양(위대성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반체제급 교양, 도덕 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장마당 세대인 청년들의 정체성 변화와 외부정보의 유입에 따른 사상교양사업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형식적인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방법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엄혹한' 시련을 이겨낸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한 정신력을 전 사회적 모범으로 확산시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청년들을 사회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내세워 청년들을 결집하고 김정은 시대만의 '청년 전형'을 만들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현재 김정은 체제는 청년들의 정체성 변화를 인식하며 나아가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고, 체제유지에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는 앞으로 체제유지와 발전에 청년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은 청년들이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청년강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청년들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대우가 없다면, 자발적으로 청년들의 역할을 계속 주문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은 청년들에게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노동력 동원

만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현재 북한의 청년들은 그들의 역할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며, 북한 사회의 체제변화 징후가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경제문제가 가중되고 외부의 정보유입이 계속된다면, 북한의 청년들이 체제유지의 근간이 아닌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력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 제출: 10월 10일 ■ 심사: 10월 24일 ■ 채택: 12월 3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7.
- 김갑식 외.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 연구: 체제 수호의 전위대, 청년동맹』. 파주: 한울, 2008.
- 박영자.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태지역 청소년정책 연구』. 서울: 유네스코 출판사, 1998.
- 이종석.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1998.
- _____.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홍 민.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2017.

2. 논문

- 김성수. “북한문학, 청년 지도자의 욕망— 김정은 시대, 북한 문학의 동향과 전망.”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1』, 2014.
- 김종수.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 『통일연구논총』. 제22권 제2호, 2013.
- _____. “북한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제42집 제1호, 2017.
- 이기훈. “청년, 근대의 표상—1920년대 ‘청년’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제37호, 2004.
- 이무철. “북한 교육정책의 정치학.” 『현대북한연구』. 제18권 1호, 2015.
- 이상숙. “북한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엘리트 변동.”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17, 2016.
- 정성장. “김정은 시대 북한군 핵심 요직의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 『세종 정책브리핑』. 2015-4, 2015.
- 편집부. “사회주의 문명국: 경제생활과 문화생활 향상.” 『민족21』. 2014년 3월호, 2014.

3. 북한자료

- 김정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한 연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 김정일.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 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 채종완. 『청년사업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강성진.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청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가 되기 위한 중대한 요구.” 『정치법률연구』. 제4호, 2017.
- 계은심. “청년들을 사회주의의 견결한 옹호자, 힘있는 건설자, 믿음직한 보위자로 교양육성하는 것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 『철학연구』. 제2호, 2018.
- 길소향. “우리의 청년강국은 김일성, 김정일 청년강국.” 『정치법률연구』. 제4호, 2017.
- 김양환.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는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로 내세우는 정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률)』. 제62권 제4호, 2016.
- _____.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률)』. 제63권 제1호, 2017.
- 김철성. “청년기 능력과 재능적 특성.” 『철학연구』. 제145호, 2016.
- 김현구. “청년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사회과학원학보』. 제2호, 2017.
- 로승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3대전략에 대한 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제63권 제1호, 2017.
- 류성일. “청년중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로선.”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제62권 제4호, 2016.
- 박미향.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의 창조와 발양의 원천.” 『철학연구』. 제149호, 2017.
- 홍옥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하기 투쟁.”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률)』. 제64권 3호, 2018.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4. 기타자료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theme/peopleList.do>>.

데일리NK <www.dailynk.com/>.

A Study on the ‘Youth-Focused Policy’ of Kim Jong-Un System

Young-Ae Bae

This paper's aim analyzes the ‘youth-centered’ policy, in which young people of the Kim Jong-un regime have more meaning in society as a whole and to assess how young people are being used to maintain the system.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m Jong-un regime is that the ‘youth’ is a powerful keyword that includes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s a whole and the interest and status of younger generations is emphasized more than Kim Il Sung and Kim Jung Il system. Kim Jong-un system's ‘youth-focused’ policy is strengthening the status and activities of the Youth Alliance through the 9th Youth Alliance and youth mobilization and ideological education are progressing more. In addition, the Kim Jong-un system recognized the existence of Kim Jong-un as a ‘youth leader’ through the continuous holding of conferences and events related to ‘youth’ and wanted to capture the hearts of young people. Recently, Kim Jong-un is presenting the sprit of Baekdu youth hero’ with the new era spirit of the system. It focuses on making young people who have done best in a difficult environment as the leading character of the society, bringing them together and making ‘youth type’ of the Kim Jong-un era. At present, the Kim Jong -un regime is aiming to recognize the change of young people through the ‘youth-focused’ policy, to bind younger generations and to stabilize the system maintenance. In the future,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seek ways to make full use of youth's capabilities in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system.

Key Words: Kim Jong-un, Youth-Focused Policy, Role, Maintain System, Youth Type, Sprit of Baekdu Youth Hero